



결전 앞둔 태극 전사들

일본대표팀과의 친선경기를 위해 8일 오후 일본 삿포로에 도착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시라히타야마 구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 박주영-이근호-구자철 '일본 격파' 삼각편대

오늘 오후 7시30분 양보없는 한·일전  
日 해외파 총동원·응원 텃세 이겨내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두고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상대로 마지막 모의고사에 나선 축구대표팀이 박주영(AS모나코)-이근호(감바 오사카)-구자철(함부르크)의 공격 삼각편대를 앞세워 화끈한 골 사냥에 나선다.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 7시30분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돔에서 일본 대표팀과 75번째 한·일전을 치른다.  
역대 전적에서 일본에 40승22무12패로 앞선 대표팀은 이번 한·일전을 통해 내달 2일 레바논과의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에 나설 베스트 11의 윤곽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조광래 감독은 8일 일본에서 치른 첫 훈련

에서 "이제 더 이상의 시험무대는 없다. 지금은 모두가 주전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경기에 나선다"며 치열한 경쟁을 강조했다.  
특히 조 감독은 이번 경기를 통해 정강이 뼈 골절로 장기 결장하게 된 이창용(불턴)의 공백을 메우고 태극마크를 반납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빈자리를 차지할 대체 자원을 찾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조 감독은 일본전 필승카드로 박주영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우고 좌·우 날개에 이근호와 구자철을 배치하는 4-2-3-1 전술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창용의 공백을 대신할 구자철은 그동안

안 중앙 미드필더와 왼쪽 날개로 뒀던 적은 있지만 대표팀에서 오른쪽 날개를 맡는 것은 처음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을 앞두고 소속팀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자리를 옮겨 훈련했기 때문에 조 감독의 낙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 감독은 구자철을 전반에 투입하고 후반에 남태희(발랑세엔)이나 김보경(세레스 오사카)을 교체투입할 생각이다.  
박주영이 원톱으로 나서지만 이근호와 구자철과 함께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일본의 튼튼한 미드필더 라인을 공략한다.  
조 감독은 "일본의 미드필더 플레이는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우리도 빠르고 세련된

축구를 구사하는 만큼 상대의 리듬만 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파 총동원령'을 내린 일본 대표팀은 8일 훈련을 비공개로 치를 만큼 조심스럽게 한·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일본대표팀을 맡은 알베르토 자케로니(이탈리아) 감독은 최근 여자대표팀의 2011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우승으로 한껏 들뜬 분위기를 한·일전 승리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6만7000여석에 달하는 삿포로돔 입장권도 일찌감치 매진돼 태극전사들은 일본 팬들의 응원 텃세도 이겨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연합뉴스

백넘버 '17번' 지동원  
13일 리버풀과 개막전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지동원(20)이 소속팀 선덜랜드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www.safc.com)와의 인터뷰에서 시즌 개막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13일 리버풀과 2011-2012 시즌 개막전을 치르는 지동원은 "프리 시즌 경기에 많이 뛰면서 훌륭한 경험을 했다. 모든 경기가 흥미로웠고 많이

이기는 못했지만 팀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4일 5부리그 달링턴FC와의 경기에서 프리 시즌 첫 골을 터뜨렸던 그는 "첫 골은 수비수 맞고 골짜개 나온 공을 넣은 것이라 행운이 따랐다. 아무튼 기다려온 첫 골을 넣을 기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동원에게는 13일 리버풀전이 의미가 크다. 잉글랜드 진출 이후 첫 공식 경기기 때문이다. 조광래 대표팀 감독도 선덜랜드 구단과 합의해 10일 일본과의 평가전에 지동원을 부르지 않았을 정도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동원은 "몸 컨디션은 70% 정도 올라온 것 같다. 적응 문제도 있어서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주일에 두세 번 영어 공부도 하는 중"이라고 영국 생활을 소개했다.  
개막전에 대해 "첫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긴다면 자신감이 생겨 승수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는 "팀내 좋은 선수들이 많이 경쟁이 치열하다. 개막전에 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만큼 기회를 주어질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선덜랜드 구단은 이날 이번 시즌 선수들의 등번호를 확정, 발표했다. 지동원은 프리 시즌 경기에 달았던 17번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 시즌 마지막 메이저 PGA챔피언십 내일 개막

한국 최경주·김경태 등 7명 출전

2011 골프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이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전에 들어간다.  
미국 조지아주 존스 크릭의 애틀랜타 어슬레틱 골프장(파70·7467야드)에서 열리는 PGA챔피언십은 2009년 양용은(39·KB금융그룹)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꺾고 역전 우승을 차지해 한국팬들의 뇌리에 깊이 남은 대회다.  
올해는 양용은을 비롯해 최경주(41·SK텔레콤),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 재미교포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까지 코리아 브라더스 7명이 출전해 세계 정상 골퍼들과 실력을 겨룬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왼쪽 무릎 부상에서 회복해 명예회복을 노리는 우즈와 차세대 골퍼로 주목받는 로리 매킨로이(북아일랜드), 세계랭킹 1위 루크 도널드(잉글랜드), 2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등 톱랭

커들의 대결이 불꽃을 뿜 전망이다.  
세계남자골프랭킹 18위까지 뛰어오른 김경태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상급왕에 오른 김경태는 지난 5월 국내대회인 매경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뒤 일본 대회 세미컵에서도 정상에 오르는 등 돌출 오른 샷 감각을 뽐내고 있다.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서도 공동 44위를 차지한 김경태는 US오픈에서 공동 30위에 올라 미국 무대의 적응력을 키웠다.  
지난주 특급대회인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에서는 공동 6위에 오른 선전을 펼쳐 해외에서 뛰고있는 한국 영건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이 때문에 이번 PGA 챔피언십에서 국내팬들이 김경태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플레이어스챔피언십 우승으로 확실하게 부진에서 벗어난 최경주와 2년 전 영광의 재현을 노리는 양용은도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올 시즌 스윙을 교정하다 샷 감각을 잃었던 노승열도 새로운 스윙에 적응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 지구촌 달구는 'A매치 데이'

독일-브라질, 미국-멕시코, 스페인-이탈리아  
10~11일 전 세계에서 52개 A매치 친선 경기

국제축구연맹(FIFA)가 정한 'A매치 데이'를 맞아 전 세계가 축구 열기에 빠져든다.  
9일(이하 한국시간) FIFA에 따르면 10~11일 이틀간 유럽과 남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모두 52개 A매치 친선 경기가 열린다.  
10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3차 지역예선을 앞둔 한국이 '숙적' 일본을 상대로 벌이는 실전 '모의고사' 외에도 독일-브라질, 미국-멕시코, 스페인-이탈리아 등 전통의 강호들이 맞붙는 경기들이 눈길을 끈다.  
유럽의 강자 독일은 남미 최강 브라질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2005년 컨페데레

FIFA 랭킹 1위인 '무적함대' 스페인은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와 원정 친선전을 치른다.  
사비, 카를레스 푸울(이상 바르셀로나) 세스크 파브레가스(아스날) 등 정예 멤버 중 상당수가 부상과 체력 난조로 빠졌지만 역대 상대전적에서 7승10무7패로 팽팽히 맞선 이탈리아에 지지 않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잉글랜드는 런던 웹볼러 스타디움에서 네덜란드와 친선전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최근 런던 토트넘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 시작 24시간 전까지 경찰과 상의해 경기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밖에 아프리카의 두 강호 가나와 나이지리아는 영국 왓포드에서 친선전을 치르고 한국과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로 묶인 쿠웨이트는 북한과 평가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무등빌딩 임대층 내역 (분할가능)

지하 2층	397평
지상 2층	332평
3층	369평
10층	331평

# 무등빌딩에서 시작하십시오!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주차시설이 완비 · 중앙 공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환경!**

면적 **332평/2층**  
**희망업종 금융·증권**  
(즉시입주, 전액보증금가능)

임대문의 062) **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